

전국동계체육대회 바이애슬론

무주군청, 10년 연속 1위 기염

금 2·은 2·동 1개 획득 최두진 선수 2관왕 올라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지도자 최호엽)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스포츠평크 바이애슬론센터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4개의 메달을 목에 걸어 만행으로서 자존심을 지켰다.

무주군에 따르면 22일 열린 혼성계주(최두진 선수 출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비롯해 21일에는 22.5km계주에서 이준복, 최두진, 최창환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최두진 선수는 토달 2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20일에는 최두진 선수가 개인스프린트 10km경주에서 2위를, 이준복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19일에도 개인 20km에서 최두진 선수가 2위를 차지했다.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김호엽 감독은 "그간 고생이 많았던 만큼 좋은 성적을 내 기쁘다"라며 "이제부터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뤄도 뒤지지 않을 실력과 체력을 기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두진 선수는 "대회마다 두각을 나타내며 무주군과 전북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초·중·고 어린 선수들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남는 대회였지만 최선을 다했던 만큼 이제부터는 다음 대회를 위한 훈련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김호엽 감독이 이끄는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남자)은 2011년 창단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이 평창 알펜시아 스포츠평크 바이애슬론센터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21일 22.5km계주에서 이준복, 최두진, 최창환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돼 이수영(국가대표), 이준복, 최두진(국가대표), 최창환 선수(국가대표), 김용규(국가대표) 등 5명의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종별 선수권대회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80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등 실력을 뽐내며 바이애슬론 강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무주군은 올해도 4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품 및 피복, 국내외 전지훈련과 대회출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했던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을 비롯한 도체육회 소속 선수단, 그리고 무주와 무풍, 안성, 실천, 부남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선수 등 76명(바이애슬론+스키)은 50개의 메달(금 15, 은 18, 동 17)을 목에 걸면서 전북이 21년 연속 종합 4위(금 21, 은 21, 동 21)를 차지하고 바이애슬론 종목은 10년

연속 종합 1위를 달성(금 15, 은 14, 동 11)하는데 주역이 됐다.

무주군 최윤아 선수는 바이애슬론 개인경기와 스프린트, 계주,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프리종목에서 4관왕에 오르며 역대 전북 선수단 최초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국체육기자연맹 선정)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무주중 정영은 선수와 안성중 김기은 선수, 무주초 김혜원 선수, 도체육회 김선수, 고은정 선수가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그리고 안성초 정세은가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2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전북도체육회 관계자는 "전북바이애슬론 선수단의 선전은 선수층이 두터운 무주지역 내 육성학교(팀)의 선의의 경쟁이 고스란히 실력으로 축적되어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마이산과 인근 주요 산에 건강을 테마로 한 종합관광개발을 수립한다.

마이산 헬스 관광벨트 조성 '시동'

진안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21년까지 총 60억원 투자

진안군은 마이산 헬스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군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인근 도시민에게 휴식·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색다른 즐길거리와 체험 기회를 줄 수 있는 건강을 테마로 한 종합관광개발을 수립한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걷기여행의 중요성과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이산을 중심으로 명상길을 조성하고 탐방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마이산을 다양한 각도에서 즐길 수 있는 경관 거점을 구축하여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더해 예정이다.

특히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악지대인 진안군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마이산과 인근 주요 산에 산림치유 공간 조성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간 약 1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마이산은 1억년 전 신비를 간직한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이자 세계 최고 권위의 여행안내서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 소개되어 만점을 받은 곳이다. 알마이봉과 수마이봉으로 이뤄져 경관적 특징이 있고, 수많은 타포니가 발달하여 학술적 가치도 매우 커 2003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12호로 지정된 진안의 대표 관광지다.

안계현 관광과장은 "자연친화 관광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정신적 안정과 휴식, 건강을 지향하는 자연친화적 관광지 조성으로 진안군이 헬스관광의 메카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2019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

장수군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내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25일 지난해 말 관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2,472명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 발굴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수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8명이 독거노인 가정에 직접 방문해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접촉 등과 가사·간병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노케어 등 서비스 이용실태를 확인해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자 선정과 독거노인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주1회 방문, 주 2회 안부전화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생활교육과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교섭을 통해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서비스 제공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자문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장수군은 25일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 박현식 실장, 오재만 자문위원, 전주대 최영기 교수 등 위원단 및 관계자 1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밀착형 SOC사업 자문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장수군 민선 7기 공약배심원단 오재만 자문위원과 최영기 교수, 우석대 유대근 교수, 삼농연구소 이승형 소장, 마을발전소 권대환 연구소장, 호원대 송재복 교수, 배재대 최호택 교수 등 여가·건강 활동 및 지역활력, 생활안전 및 환경 등과 관련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여가·건강활동, 지역활력, 생활안전·환경분야 총 4개 분야로 ▲지역사회 의견 수렴, ▲주민참여 방안 및 운영 모델 발굴 자료, ▲사업추진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자료, ▲지역 내 자원과 생활SOC 사업 간 연계 추진 방안 자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위원들은 개발된 장수군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들을 검토했다.

장영수 군수는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SOC사업 발굴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3월 8일까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작업 박차

진안군은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사전 예방하고자 3월 8일까지 산불발생 위험요인 사전제거작업을 실시한다.

군은 산불진화대 43명을 활용에 위험요인 사전 제거반 4개조를 편성하고 현장에는 산불진화차와 진화장비를 투입하여 안전조치 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계속되는 건조주의보 발령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별도 기간을 정해 마을별 공동소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험요인 사전제거작업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3~4월 이전에 인화물질을 제거하여 산불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무주군, 반딧불 농업대학 수강생 모집

3월 15일까지 선착순

무주군은 전문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한 반딧불농업대학 1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한은 3월 15일까지로 사과과 50명, 포도과 50명, 농산물마케팅 50명 등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해당

읍·면 주민자치센터 산업팀이나 상담소, 농업기술센터 강소농육성팀) 가능하며 최근 3년 간 농업대학에 다닌 적이 없는 수강생을 우선 선발한다.

농업대학 수강신청 후 졸업을 하지 못했던 수강생은 제외할 계획이다.

반딧불농업대학(매주 화, 수, 목요일 14:00~18:00)은 3월 22일 개강식

과 함께 시작돼 사과과는 매주 화요일(24회), 포도과는 수요일(23회), 그리고 농산물마케팅과는 매주 목요일(24회)에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하현진 강소농육성 팀장은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을 위해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교육을 진행해 농업인들이나 지역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